

# 광주디자인진흥원, 지역 인쇄산업 혁신성장 돕는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역 인쇄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광주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디자인·ICT 융합 인쇄산업 혁신성장 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2년도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의 '시·군·구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인쇄기업의 매출 및 고용 창출 등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인쇄기업은 1,000여 개에 이르고, 호남 최대 집적적인

컨설팅·고용 창출 등 활성화 지원

작년 수혜기업 매출 12%↑ 성과

28일까지 모집...3개사 집중육성

동구 서남동 인쇄거리에만 308개의 인쇄기업이 몰려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사업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인쇄물 감소, 지역 인쇄 물량 역외 유출, 수주 경쟁 심화 및 단가 하락,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와 디자인진흥원은 사업 환경 변

화에 대응하도록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유치해 ▲컨설팅 ▲제품고급화 ▲시제품제작 ▲국내 및 해외 전시 참가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 지원 ▲홍보마케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원한 19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매출이 1,133억 원으로 2020년(1,008억 원)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 스티커·라벨 인쇄기업은 특수인쇄기술 상용화에 성공, 지역화폐 등 신규 수주물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2020년 30억 원에서 지난해

48억 원으로, 60%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생산 및 매출 증가에 힘입어 고용 인원도 전년(249명) 대비 9.6% 증가한 27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올해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광주시 소재 ▲오프셋인쇄 ▲그래비아인쇄 ▲특수인쇄 등 지역 내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지원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특히, 광주시 동구 남동 일대의 인쇄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비즈니스

확산에 대응하도록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활짝패키지(www.hjjpack.co.kr)'를 활용해 참여기업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과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지원 필요성, 보유역량, 사업화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유망기업 3개사는 패키지 지원을 통해 혁신형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을 참조하고, 준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ris@gdc.or.kr)로 신청하면 된다. /홍승현 기자



수박, 꺾어드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청과매장에서는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의 다양한 미니 품종들을 선보이고 있다. 애플수박은 기존 수박 대비 껍질이 얇아 사과나 배처럼 껍질을 꺾어 먹을 수 있고 1인 가구가 혼자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가 특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무송엘티씨, 중앙표지자 지표 임상 개시

㈜무송엘티씨가 지난 6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학연구실의위원회 분광기를 통한 중앙표지자 무채혈진단 임상승인 이후 최근 첫 대장암 환자를 등록했다.

12일 ㈜무송엘티씨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의 목적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중앙표지자 지표와 일치하는 파장 분석 및 일치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100명의 피험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지난 11일 첫 대장암 환자를 등록으로 순조로운 임상시험 진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석 대표는 "지난 당도 임상시험의 좋은 결과 값 도출에 이어, 중앙표지자 또한 순조로운 임상시험 진행과 90% 이상의 일치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 지역 6월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증가

5월 대비 소폭 하락

광주전남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는 증가했지만 지난 5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취업자는 75만명(고용률 58.7%)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명(0.1%p) 증가했다.

지난 5월 취업자(75만 2,000명)에 비해서는 2,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만 2,000명(16.3%), 광공업 8,000명(8.1%), 농림어업 4,000명(27.1%)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7%(-1만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7%(-9,000명), 건설업 -6.6%(-5,000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만 2,000명(2.9%), 임시근로자는 3,000명(1.9%)으로 증가했고 일용근로자는 1만명(-25.0%)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3,000명(-9.9%), 자영업자는 1,000명(-0.8%) 줄었다.

광주시 6월 실업자는 2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000명(23.6%)감소했고 실업률도 2.8%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했다.

전남지역 취업자는 총 102만1,000명(고용률 66.9%)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9,000명(1.1%p)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만 4,000명(8.6%), 농림·어업 1만 2,000명(5.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000명(0.9%) 등에서 증가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 -7.2%(-6,000명), 건설업 -6.5%(-5,000명)에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000명(0.6%), 일용근로자는 2,000명(5.5%)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만명(-5.4%)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2만 6,000명(8.7%) 늘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000명(-1.9%) 감소했다.

전남도 6월 실업자는 2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00명(6.6%) 증가했다.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홍승현 기자

## LH, 수선유지급여사업 현장품평회

LH광주전남본부부는 최근 '수선유지급여사업 현장품평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현장품평회는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LH광주전남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할 11개 보수업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광산구 등에 소재한 개·보수 완료 주택 3곳을 둘러보며 우수한 시공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연수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